

‘공공기관은 전북으로!’ 우선 배치 촉구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금융·농생명바이오·미래첨단산업 공공기관 전북 우선 배치해야”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금융과 농생명바이오, 미래첨단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10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단순한 이전을 넘어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해 지역 산업과 공공 기능을 연결하고,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국가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기업 투자 위축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전북 우선 배치는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공정한 선택이자, 이미 구축된 산업 기반에 국가 기능을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공공기관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배치해야 국가균형 성장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금융·농생명바이오·미래첨단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를 촉구했다.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과 자산운용 기능을 집적해 전주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 경제

계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9대 공제회 등의 전북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농생명바이오 분야는 농업·식품 관련 공공기능을 연계해 전북의 농생명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등의 전북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관련 협력기업 집적과 후속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교통기술 등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경제계가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북 배치를 요구하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다.

김 회장은 이날 ‘공공기관은 전북으로!’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전북 우선 배치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국가균형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은 10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스콜팜 꼬마 농부들의 농심동심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심동심 그림 공모전’ 시상

전북농협, 스콜팜 참여 학생 250여점 출품… 수상작 19점 선정

전북농협이 스콜팜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그림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을 선보였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10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스콜팜 꼬마 농부들의 농심동심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농협이 운영하는 스콜팜 참여학교 학생들이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해 농심전심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모두 14개 학교에서

250여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작품은 주제 적합성과 독창성, 표현력 등을 중심으로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점을 포함해 모두 19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이리백제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 학생들은 농협은행 금융체험교실에도 참여했다. 학생들은 금융교육을 통해 올바른 금융습관과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오는 21일까지 전주KBS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오상근 기자

농생명·바이오 기업 성장 지원 ‘맞손’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바이오진흥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 체결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농생명·바이오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성장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지난 7일 도내 농생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농생명·바이오 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의 5대 핵심산업 가운데 하나인 농생명산업과 미래첨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기업에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례보증은 전북신보 자체 재원 8억원을 기반으로 총 1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년간 대출

금리 1.5%를 이차보전해 기업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05점 이상인 도내 농생명·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전략지원 부문’과 ‘일반지원 부문’으로 나뉜다. 전략지원 부문에는 진흥원 입주기업과 선정기업을 비롯해 장류·인삼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기능성 식품 제조업체가 포

함된다. 일반지원 부문은 식료품·음료 제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생명·바이오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4억원, 중기업은 최대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연 0.09%이며, 대출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은 오는 18일부터 ‘보증드림’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을 통해 사업장 관할 영업점 상담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와 드론·AI 기반 첨단 조사기술 및 농지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연금, 중소기업인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중소기업인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겪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부산과 성남, 수원, 대구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9월 3일 성남 근로자종합복지관, 9

월 4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10월 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각각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민연금 제도 △건강보험 제도 △고용·산재보험 제도 △4대 사회보험 누리집 이용 방법 등이다.

교육 대상도 대학생 등 청년층까지 확대한다. 취업이나 창업 등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지원해 향후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보험의 권리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스케일업 공공실증 참여기업 추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추가 모집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2026년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억3천만원이며,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6천만원의 공공현장 실증비가 지원된다. 선정 기업은 지원금의 20%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창업·벤처기업이다.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의 제품·서비스와 등록특허, 실용신안,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등 관련 기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스케일업 트랙’은 전북도 지정 투자사의 추천을 받은 기업 가운데 TPS 선정 후 1년 이상 경과했거나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드론·AI 데이터 공유로 농지조사 혁신

한국농어촌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드론과 인공지능(AI), 농지 관련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행정 편의를 개선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와 드론·AI 기반 첨단 조사기술 및 농지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AI·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조사 기술과 데이터를 상호 활용해 농지 전수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영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